

지역 소식 통

부안군, 군민 편의성 증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부안군은 지난 14일부터 휴대 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급되는 1단계 대상 지역은 전북, 대구, 대전, 울산, 강원 등으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오는 3월 14일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국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군민으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속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보건소, 자동문
개방 민원 편의 강화

정읍시보건소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원스톱 보건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시민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번 개선 사항으로 노약자와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중앙 자동문을 개방하고 안내데스크·민원 대기 공간을 재배치해 출입구 혼잡도를 줄였다.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민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등 7개 진료분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보건행정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료민원팀'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분기별 소통간담회를 통해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게시판을 정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저소득가구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고창군, 전년대비 1억800만원 · 배정물량 18동 증가... 저소득가구 주거개선 혜택 多

고창군이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공사와 창호 교체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총 3억 7200만원(62동)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업비(2억 6400만원)와 물량(44동) 모두 올해 대폭 늘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

진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 14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다.

세대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며, 단열공사·보일러 공사·창호 교체·도배·장판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수리를 진행한다.

또한 군은 고창지역자활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2~3월 중 신청을 받아 최근 3년간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이력을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집수리 비용 부담이 커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해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실과소별 현안 업무 · 민원 · 건의 사업 등 경청

정읍시, 실과소장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정읍시가 주요 역점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읍면동장 공감소통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20일에는 실

과소장들과 함께 '공감소통간담회'를 열고 각 부서별 추진사업의 현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초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부서장들이 한



실과소장들과 함께 '공감소통간담회'를 열고 각 부서별 추진사업의 현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서 공유된 주요 사업으로는 △무성서원 유교수원원 건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정읍을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동물보호센터 신규 조성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하수 시장은 "부서 간 협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간담회를 정례화해 각 부서가 건밀한 협조를 이어나고,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목표를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진서면, 권익현 군수와 2025년 군민과 희망소통대화 개최

부안군 진서면(면장 김연태)은 20일 고평소갯길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부안군 의원,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및 관내 기관단체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진서면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들으면서 나팔방향을 군수와 자유롭게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것.

이날 소운호마를 한주민은 산 밑에 경사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고 눈이



녹지인해 마을 진입로에 열선을 깔아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진서2구 주민 박영복씨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문열고 닫는게 힘들

어 자동문 설치의견과 보일러가 오래되어 교체를 부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에게 전달했다.

권익현 군수는 "생활안구가 부안군에서 진서면이 제일 많이 찾아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며 "작은목욕탕 완공과 진서면사무소 완공 2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군정비전 및 운영방향에 담긴 동영상을 공유하며, 군정에 대한 진서면민들과 진솔한 의견을 수렴 소통의 장을 열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조례안 · 동의안 등 13건 의결

부안군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0일 오전9시 제35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 바다비블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각종 건의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지역 발전과 농업·경제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3건이 채택돼 주목을 받았다.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2036년 하계 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치되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민들의 경작권을 제한하고

소득감소를 초래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은 최근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난방유 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가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하고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뜻깊은 조례와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35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학생 재능 · 코딩 · 예술 지원’

정읍시, 학생재능교육 육성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심의 · 결정

정읍시가 2025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6억 9750만원을 투입해 학생 재능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교육지원 사업을 심의·확정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학교 보조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는 유호연 부시장(위원장)과 사의원, 고정희 문화행정국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학생 재능교육

육성지원사업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지원사업 △정읍음악 활성화 학교 육성지원사업 △코딩교육 지원사업 △스쿨버스 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무장면 유동영씨, 이웃돕기 기탁

고창군은 지난 20일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에서 우리쌀 650kg(1500만원 상당)의 성품을, 무장면에 거주하는 유동영씨가 1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미정 NH농협 고창군지부장은 "따뜻한 마음을 한데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장면 유동영씨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이 작은 따뜻한 손길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기부자들의 작은 정성이 소와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